

<제1강>

씨올의 스승과 제자

전호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길 / 처자를 내맡기며 / 맘 놓고 갈만한 사람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탕던 배 꺼지는 시간 /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할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 '저 하나 있으니'하며 /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이 1947년 7월 20일에 쓴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이다. 이 시에서 가리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독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테지만 만약 시인에게 그가 누구이며 스스로 그런 사람을 가졌는지 물어보면 스스로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대답을 듣지 못했으니 알 수는 없으나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다. 이 시를 쓸 무렵 함석헌은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북녘 땅에서 신의주 학생 사건, 오산학교 반정부 전단 살포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다가 이해 3월 17일에 남쪽으로 내려와 서울에서 이곳 저곳을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그에게 가장 행복한 때이기도 했다. 오래 전 헤어졌던 스승 유명모를 다시 만나 함께 하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6년 전인 1921년 가을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 삼일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평양고등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하고 학업을 중단했던 함석헌은 사촌형 함석규의 권유로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편입했는데 그 해 가을에 31세였던 다석 유명모가 오산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1년 남짓 사제의 정을 나누는데 그치게 된다. 일제가 유명모의 교장 취임을 인가하지 않아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났고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된 적도 있었지만 분단 이후에는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이 1947년 3월이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함석헌은 Y.M.C.A. 강당에서 열리는 일요 종교 집회에 참석하면서 스승 유명모를 모시고 배웠다. 그 해에 두 사람은 함께 산행을 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광주 등지를 여행하기도 하며 사제의 정을 이어갔는데 함석헌이 같은 해 7월에 이 시를 쓴 것이니 함석헌에게 시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유명모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루하루를 영원처럼 살다

유영모는 1890년 3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 유명근에게 천자문을 배웠고, 서당에 다니며 《통감절요》, 《천자문》, 《맹자》 등을 공부했다. 열 살 때 소학교에 입학했지만 다 마치지 않고 다시 서당 공부를 하다가 1905년부터 YMCA 총무 김정식의 권유로 연동교회에 나가면서 기독교에 입문했다. 1910년에는 이승훈의 초빙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서 2년간 교사로 지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무렵 톨스토이의 저작에 심취하게 되면서 정통 기독교 신앙에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191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물리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면서 일본의 종교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의 강연을 듣고 크게 감명 받아 무교회주의의 길을 가게 된다.

1915년 25세에 김효정과 결혼했는데 26년이 지난 1941년 51세에 해혼(解婚)을 선언한다. 해혼은 이혼이나 파혼과 달리 글자 그대로 혼인의 구속을 푼다는 뜻으로 이를 통해 아내와 헤어짐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된 사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918년부터 살아온 날수를 헤아리기 시작했다. 일기에 스스로 '하루살이'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날마다 편견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영원의 시간으로 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1년에는 조만식의 후임으로 오산학교 교장이 되어 1년간 일하는데 이 때 함석헌과 처음 만나게 된다.

1928년에는 YMCA 간사였던 현동완의 요청에 따라 연경반을 맡아 성서와 동아시아 고전을 강독했는데 이 모임은 1963년까지 35년간 이어졌다. 1941년 51세 되던 해부터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기 시작했는데 하루 삼시 세 끼를 합해서 저녁 한 끼만 먹겠다는 뜻으로 호를 다석(多夕)이라 했다고 한다.

1942년에는 '성서조선 사건'으로 57일 동안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었다. 《성서조선》은 기독교 사상가 김교신이 함석헌, 송두용, 정상훈, 류석동, 양인성과 함께 1927년부터 1942년까지 발행한 무교회주의 기독교계 월간 잡지로 이 잡지 158호에 죽은 개구리를 조문하는 내용의 '조와(弔蛙)'라는 글을 권두언으로 실었는데, 일제가 조선 민족의 소생과 일제에 대한 저항을 촉구한 비유라고 빌미를 삼아 잡지에 글을 쓴 필자와 독자들까지 구속한 것이다.

1955년 65세가 되던 해에는 자신의 사망 예정일을 선포했다. 1956년 4월 26일에 죽는다고 했는데, 앞서의 해혼 선언이 인류가 만든 제도의 구속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면, 사망 예정일 선포는 자연이 만든 생물학적인 구속을 벗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59년에는 노자 《도덕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늪은이》를 세상에 내놓았다.

1977년 6월에는 톨스토이처럼 객사할 요량으로 가출했다가 사흘 만에 순경에게 업혀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사망 예정일을 선포한 이후 이때까지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겠다는 의지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91세로 구기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셈했던 식으로 날짜로 헤아리면 3만 3,200일을 살았다.

씨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다

함석헌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군의 황해 바닷가 조그만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날인 3월 13일은 공교롭게도 스승 유영모가 태어난 날과 같은 날짜다. 게다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짜도 단 하루 차이다. 유명모는 1981년 2월 3일 91세로 세상을 떠났고, 함석헌은 1989년 2월 4일에 88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훗날 함석헌은 제자들에게 스승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은 날짜를 헤아리는 것과 일종식(하루에 한 끼만 먹음)을 하는 것 두 가지인데 나도 처음에는 생일을 음력으로만 알 뿐이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으므로 양력으로 하게 됐고 날을 헤아리게도 됐습니다. 더구나 생일이 선생님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범연하게 보시지 않는 선생님이 더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아홉 살 때 나라가 망했다. 당시 함석헌은 어른들이 예배당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1916년에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가 3학년 때에 3·1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함석헌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독립선언서를 전날 밤중에 송실학교 지하실에 가서 받아 들던 때의 감격! 그날 평양 경찰서 앞에서 그것을 뿌리던 생각,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가행진에 참가했는데 내 60이 되어오는 평생에 그날처럼 맘껏 뛰고 맘껏 부르짖고 그때처럼 상쾌한 때는 없었다. 목이 다 타 마르도록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팔목을 비트는 일본 순사를 뿌리치고 총에 칼 꽂아가지고 행진해 오는 일본 군인과 마주 행진을 해 대들었다가 발길로 채여 태연히 짓밟히고도 일어서고, 평소에 처녀 같던 나에게서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는지 나도 모른다. 정말 먹었던 대동강 물이 도로 다 나오는 듯 했다.

결과는 퇴학이었다. 당시 일본인 교장이 반성문을 써오면 복학시켜주겠다고 했지만 함석헌은 거절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그는 평생의 스승을 만나게 된다. 1921년에 오산학교 3학년에 편입했는데 그해 가을에 평생의 스승 유명모를 만난 것이다. 그는 유명모를 통해 톨스토이와 노자, 우치무라 간조를 접하면서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훗날 함석헌은 오산학교에 가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 발길에 채여서 된 일이라고 고백했다.

1923년에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에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다니면서 우치무라 간조의 강연을 직접 듣고 난 뒤 스승과 같은 무교회주의의 길을 가게 된다. 1928년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1938년까지 역사와 수신(修身)을 가르쳤다. 1934년 2월부터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연재하기 시작하여 1935년 12월까지 지속했는데 이 글은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출간된다. 1942년에는 ‘성서조선 사건’으로 유명모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었다.

광복 후인 1945년 9월에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을 맡았는데 11월 23일에는 신의주 학생 사건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소련군 사령부에 체포되어 50일간 구금되었다. 1947년에는 남으로 내려온 뒤에는 미 군정을 비판하고, 자유당 독재, 군사 독재와 싸웠다. 1958년 8월에는 《사상계》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기고하여 자유당 독재를 비판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20일간 구금되었다. 또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사상계》에 ‘5·16을 어떻게 볼까’를 발표하여 군사정권을 비판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으니, 1970년에는 법정투쟁 끝에 《씨울의 소리》를 창간하여 민주계몽운동과 비폭력 저항을 전개해나갔고, 1974년에는 윤보선, 김대중과 함께 민주회복국민회의에 가담하여 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1976년 3·1절

기념 미사에서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민주구국선언’, 1979년에는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을 주도하는 등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검거와 구속, 투옥이 반복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아, 1980년에는 《씨울의 소리》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에서 강연하다가 정보원들에게 연행되었고, 7월에는 《씨울의 소리》가 계엄 당국에 의해 폐간되고 만다. 이후 1987년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언론기본법이 폐기되고 《씨울의 소리》는 8년 만에 복간되었으나 기쁨도 잠시 평생 불의와 싸워온 그의 몸에는 병마가 자리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수술 끝에 1989년 2월 4일 88세로 영면했다. 살아온 날수로 3만 2,105일이었다. 장례는 나흘 후, 2천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학교장으로 거행되었고 유해는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마차산 자락에 묻혔다가 2002년에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건국포장’이 추서되면서 2006년에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태어난 날짜는 스승과 같았지만 세상을 떠난 날은 스승보다 하루가 더 지난 날짜였다. 아마도 스승과 나란히 가기 송구스러워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고자 한 것일까. 나고 간 날짜가 공교롭게도 겹쳐 있으니 스승과 제자의 정이 더욱 애틍하다.



<제2강>

시대의 자리에서 고전을 읽다

전호근

고전에서 발견한 저항의 논리

함석헌 선생이라 하면 우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가 떠오릅니다. 좁게는 자유당 독재를 비판한 글이지만, 실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는 한국인 모두를 향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서도 평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한, 이 외침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보면 쉽게 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했고, 분단 이후 자유당 정권 시기에는 자유당 독재를 비판했으며, 5·16군사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의 군사 독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시사 주간지 편집장이 함석헌이 5·16을 환영하고 찬양했다고 썼는데, 완전히 거꾸로 읽은 겁니다. 여름을 겨울이라 하고 겨울을 여름이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942년에는 ‘성서조선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고, 1945년에는 ‘신의주 학생 사건’으로 소련군 사령부에 체포되어 50일간 구금되었고, 1958년에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때문에 자유당 정권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 20일간 구금되었습니다. 이러니 평생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면서 권력을 비판했어요. 예를 들어 유신 정권 때 박정희가 해남에 있는 표충사(表忠祠)를 방문하고 이른바 정화 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표충(表忠)은 충성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함석헌은 당시 박정희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충(忠) 자를 ‘벌레 충(虫)’ 자로 바꿔서 썼습니다. 독재에 대한 충성, 버리지 같은 충성이라는 의미로 독재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과 싸우고, 또 공산주의와도 싸웁니다. 소련군에 붙잡혀 들어가기도 했고 미 군정하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비판할 때 대체로 동아시아 고전과 성서를 인용했습니다. 고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현실 비판이니 이런 방식의 읽기야말로 제대로 된 고전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은 ‘시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금서는 무엇일까요? 그 또한 ‘시서’입니다. 시서는 『시경』과 『서경』을 합해서 일컫는 말이죠. 가장 오래된 책과 가장 오래된 금서가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결국 책이란 누군가에게 금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금지했던 자는 진나라 승상이었던 이사(李斯)입니다. 이사는 이 두 책이 “옛 것을 가지고 지금을 비난한다(以古非今, 道古以誨今)”라고 했습니다. 이사가 고전을 탄압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폭거지만 그가 고전을 두고 ‘지금에 비판하는 해로운 물건’이라고 지목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정확한 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해롭다는 것은 현재의 권력에 해롭다는 뜻이죠. 어찌 시서만 그렇겠습니까.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석헌은 자신이 읽은 고전을 가지고 시대를 재해석하고 권력과 불화합니다. 고전을 그냥 글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논어』나 『맹자』 같은 유가 문헌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 도피나 은둔으로 읽기 쉬운 『도덕경』이나 『장자』를 읽을 때도 저항의 철학, 저항의 문학으로 읽어 냅니다. 심지어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처럼 지배자의 편에서 쓴 글을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인용하여 군사 독재를 비판합니다. 1963년 8월호 『사상계』

에 발표한 글 「꿈틀거리는 백성이라야 산다」에서 「토황소격문」을 인용하여 “최치원이 신라 때만 있고 지금은 없는 줄 아느냐. 지금도 세상을 망가뜨리는 놈은 ‘不惟天下之人 皆思顯戮 抑亦地中之鬼 已議陰誅[온 천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너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까지 이미 몰래 죽일 것을 의논했을 것이다]’라 한다”라고 하여 5·16쿠데타를 반란이라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데타 세력을 반란 세력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함석헌의 고전 읽기는 오늘날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도 전범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이 태어난 곳은 행정 구역으로 치면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부라면(府羅面) 원성동(元城洞)입니다. 훗날 함석헌은 자신이 태어난 평안도는 ‘상놈’이라 천대받는 지방이었는데, 그 때문에 새것을 받아들이는 데 빨라서 새 시대에 앞장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새것이란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함석헌은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서양 선진국의 종교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이후 아홉 살 때 나라가 아주 망했는데 어른들이 예배당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주 낙담하지는 않고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럽게 여기던’ 일본 말로 가르치는 공립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로 갔다고 합니다.

1916년에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데, 3학년 재학 중에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일본인 교장이 반성문을 써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함석헌은 거절하고 퇴학당합니다.

1921년에 오산학교 3학년에 편입합니다. 이때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던 유명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우치무라 간조를 알게 됩니다. 1923년에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에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다니면서 우치무라 간조의 강연을 듣고 무교회주의 기독교 사상에 깊이 감명합니다. 훗날 함석헌은 이를 두고 인생의 빛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25년에 간조의 문하생이던 김교신, 송두용, 정상훈, 류석동, 양인성과 함께 ‘조선성서연구회’를 결성하고, 1927년에는 이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창간합니다.

1928년에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오산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역사와 수신(修身)을 가르칩니다. 오산학교에서는 1938년까지 재직합니다.

1934년 2월부터 『성서조선』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연재하기 시작하여 1935년 12월까지 지속합니다. 이 글은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역사』로 출간됩니다.

그리고 1937년 12월에는 영국 낭만파 시인 셸리의 「서풍의 노래(Ode to the West Wind)」를 번역하여 『성서조선』에 게재합니다. 「서풍의 노래」 마지막 항(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의 나팔이여, 오, 바람이여,
겨울이 왔거든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The trumpet of a prophecy! O Wind,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36세의 젊은이에게 일제의 탄압은 거센 바람이 몰고 온 겨울로 비쳤을 겁니다. 하지만 함석헌은 이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 시련 속에는 기어코 봄이 오고 만다는 해방의 희망 또한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함석헌은 72세, 그러니까 10월 유신이 선포된 이듬해인 1973년에 다시 「서풍의 소리」라는 글을 『씨울의 소리』에 게재합니다. 독재 정권을 겨울에 빗대고, 지금 비록 씨울이 고통받고

있지만 기어코 씨울의 생명이 움트는 봄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희망을 실어서 씨울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1942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조선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미결수로 1년간 복역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인 1945년 9월에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을 맡았는데 11월 23일에는 신의주 학생 사건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어 소련군 사령부에 체포되어 50일간 구금됩니다. 공산주의와도 싸운 셈인데, 이 점에 특별히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남으로 내려온 뒤에는 미 군정을 비판하고, 자유당 독재, 군사 독재와 싸웠으니 가는 곳마다 권력과 불화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공산주의와 싸운 것은 틀림없지만 스스로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공산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기에 함석헌을 반공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1970년 4월 19일에 『씨울의 소리』를 창간하는데 곧이어 인가가 취소되자 법정 투쟁에 나서서 이듬해에 대법원에서 승소합니다. 이후 1980년 7월에 폐간될 때까지 『씨울의 소리』를 계속 발행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씨울의 소리』를 종종 읽었습니다. 당시 동네 서점 주인이 수학 교사를 하다 정년 퇴직한 분이었는데, 제가 자주 갔더니 『씨울의 소리』를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피를 토하는 듯한 부르짖음을 소화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석헌의 모든 글에는 동아시아 고전이 녹아 있습니다. 먼저 그가 노자와 장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석헌은 일제 강점기에는 성서를 읽으면서 버텼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도덕경』과 『장자』를 읽으면서 견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자·장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숲속에 깃들인 뱀새’같이 ‘시냇가에서 물 마시는 두더지’같이 날마다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 나는 일제 시대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를 많이 읽었다. 그 압박 밑에서 낙심이 내려 하다가도 그들의 굳센 믿음과 위대한 사상에 접하면 모든 시름을 다 잊고 다시 하늘을 향해 일어설 수가 있었다. …… 마찬가지로 이 몇 십 년의 더러운 정치 속에서도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노자·장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석헌, 「노장을 말한다」, 『함석헌 저작집 24』(한길사, 2009)에서

북송의 정이(程頤)는 『논어』를 읽은 사람은 네 부류가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읽고 난 뒤 한두 구절 얻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읽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읽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손발이 춤추는 사람이 있다[有讀了全然無事者 有讀了後其中得一兩句喜者 有讀了後知好之者 有讀了後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라고 했는데, 뒤의 두 부류는 각각 좋아하는 것[好之]과 즐기는 것[樂之]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경지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논어』에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함석헌은 여기서 자신은 노자, 장자를 그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고전을 읽기만 하고 삶을 돌아보지 않을 때 ‘책 따로 나 따로[書自我自]’라고 하는데, 함석헌의 경우는 노자, 장자가 저기 높은 곳에 있고, 나는 여기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자, 장자가 곧 내 삶이라는 식입니다. 고전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전이 된 삶’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데, 이런 식의 고전 읽기는 스승 유영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살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일상적으로 고전을 읽으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제의 압박 아래에서 성서를 읽으며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몇십 년 동안에는 노자, 장자와 대화한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깊은 숲속에 깃들인 뱀새’는 『장자』 「소요유」 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임금이 은자였던 허유를 찾아와 천하를 바치자 허유가 자신은 천하를 쓸 데가 없다고 거절하면서 “뱀새가 깊은 숲속에서 등지를 틀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생쥐가 황하 물을 마시지만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인용한 것은 아마도 천하가 쓸 데가 없어야 천하를 받지 않을 수 있듯이 권력이 필요 없어야 권력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지식을 쌓아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함석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은 살기 위해서 고전을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고전을 읽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흔한 고전 해설가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날까지의 옛글에 대한 모든 해석은 권위주의, 절대주의, 귀족주의, 고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 제일 문제되는 것은 권위문제일 것이다. …… 그 점에서는 석가나 예수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코 형식에 거리끼지 않았다. 또 저쪽을 승인시키자는 것이 목적 아니었다. 그들에게 권위는 영(靈)에 있었지 글이나 제도에 있지 않았다. ……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새 해석을 하고 깨쳤다. 그러고는 옛날의 전통을 한 점 한 획도 무시하지 않노라고 했다.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읽었다.

—함석헌, 「옛글 고쳐 씹기」, 『함석헌 저작집 24』(한길사, 2009)에서

우선 지금까지의 고전 해석을 두고 권위주의, 절대주의, 귀족주의, 고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권위주의인데, 석가나 예수의 태도를 배우면 된다고 간단히 이야기하죠. 석가나 예수는 기존의 경전이나 율법서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로 새 해석을 하고 깨우치는 방식’으로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은 “눈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자리에서 읽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고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에 얽매어 현재의 삶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탈권위의 고전 읽기는 함석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제3강>

씨올의 자리에서 읽는 노자의 반언(反言)

전호근

성인의 정치

不尙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
 不見可欲，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爲無爲，則無不治。

어진 이를 높이지 않으면 씨알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할 것ियो. 얻기 어려운 보화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씨알로 하여금 도둑질 하게 하지 않을 것ियो. 하고자할만한 것을 보 여주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므로 거룩한 이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게 하고 그 배를 차게 하며, 그 생각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굳세게 하며, 늘 씨알로 하여금 앓이 없고 하고자함이 없게하여 그 아 는 이로 하여금 감히 하지 않게 하느니라. 함이 없이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씨알 이라는건 본래 약이 있는 건 아니야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아래 다른 사람도 그걸 하게끔 마련이니까 상현(尙賢), 어진 이를 높인다는건 어진 이가 나쁘다는건 아니야. 어진 이를 높여. 어진 이만 기려. "어진 이가 좋지, 어진 이가 좋지" 자꾸 공패를 주고 훈장도 달아주고 또 그 사람은 월급을 더주고 특별히 월주고 자꾸 공패를 주고 훈장도 달아주고 또 그 사람은 월급을 더주고 특별히 월주고 자꾸 신문에도 많이 쓰고, 그것이 상현(尙賢)이야요. 어진 이라야만 일을 시키려고 하면, 될 수록은 그걸 잘알고 맘씨도 착한 사람 데려다 써야지. 어진이 쓰지말란 말 아니야. 다만 그거를 상현(尙賢), 그걸 "어진이, 어진이, 어진이" 그 한다는 법이 원고하니 돈많이 주는거, 명예났다고 하는거. 선전 많이 하는 거. 언제든지 높은 것처럼, 그런 사람은 높고 일반사람 낮고 그런 것처럼, 그런거 하지 말라. 그런거 아니하면 사민부쟁(使民不爭)이라. 씨알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사람이 세상에서 다투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데, 다투긴 왜 다투나? 바로 저것 좋단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진 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하는 건 그게 어진 이에 대해 어진 대접이 못돼, 그럭하는 것은. 오늘 누가 그랬지? 어느 분이 손자가 조각을 하는데, 전병호 선생님의 손자랬나봐. 그 손자가 조각을 한 대. 조각을 꽤 상당히 하나봐. 지난해가 일본 가서 해서도 인정을 받고 해서 또 금년에도 뭘 갖다가 내라고 그러고 한 대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얘기해가다가 하시는 말씀인데, 날더러 "조각가가 된다면 일일이 다 새기고 있는 줄 아시오?" "그럼 안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거 안 그렇습니다. 그 석고를 가지고 본래 하고 싶은 그거를 해놓은 다음엔 석수쟁이한테 내준대요. 이것보고 요대로 만들어내라." 나는 그걸 듣고 놀랐어요. 다는 아니라도 그런 예가 상당히 있기에 그러겠지요. 이건 분명히 아마 물량주의, 물량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옛날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하지요. 기계가 있어도 기계를 쓰지않고, 일부러 옛날시대엔 손으로 가지고 한다고 하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럭하지 않는 데가 그 사람의 예술에 그 정신 그거를 예술로 대접을 하는 거지요. 어찌면 이렇게 됐나? 세상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거기 싸워가며 거기 말려 들지 않는 예술가가 있어야 하겠는데, 더러 있겠지요.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야.

사민불위도(使民不爲盜)라, 그러면 도둑 없을거다. 이거는 결과가 난 다음에 불쌍한 민중 잡아다가 벌하고 때리고 처벌하지 말고, 그 위에서 정치한다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정치를 해야 이게 근본이지, 끝으로 내려와서 잡아다가 벌하고 이름은 또 교도소라고 그러고 - 차라리 징역이라고 그러면 괜찮겠어 - 교도라고 그러니까 더 안됐지.

불견가욕(不見可欲)이면, '현(見)'해도 좋을는지 몰라. 여기는 '현'하나 '견(見)'하나 상관도 별로 없습니다. 견(見)은 보여 준다.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욕(可欲), 하고자 할 만한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또 놀고 싶은 것 뭐든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겠다는 것은 "봐! 번쩍번쩍 봐, 이것 봐, 이것 봐," 그러는 거야요. 그것 참 나쁜거야. 사람의 본성이, 본성이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나와서 상받으라고 그러면 상타러 나갈 때처럼 부끄러운건 없잖아요. 상 못타본 사람은 아주 복이 있을지어다!(웃음) 조그만 상이라도 상을 타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꺼야요.

그런데 세상은 꼭 그것과 반대되는 것만 자꾸 가르쳐요. 하고자 할 만한 거. 하고 싶어하는 거.

다섯 빛깔이 눈을 멀게 한다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 令人心發狂, 難得之貨 令人行妨,
是以聖人爲腹不爲目, 故去彼取此

다섯 빛깔이 사람의 눈을 멀고 하고,
다섯 소리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맛이 사람의 입을 틀리게 하고,
몰아쳐 달리는 사냥질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며,
얻기 어려운 물건이 사람으로 하여금 틀린 짓을 하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집는다.

오색(五色)이라는건 다섯 가지 빛깔을 보는데, 그 빛깔이라는건, 빛이 좋다고 보는 다섯 빛깔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눈이 소경이 되게, 멀게 하고 또 다섯 음, 음악이, 음악소리가 사람의 귀를 도리어 귀먹게 만들고, 다섯 맛이, 사람 다 맛이 있다고 먹지만 다섯 맛이 사람의 입을 도리어 비틀어지게 어긋나게 잘못되게 만들고. 또 좋아서 좋아서 하는 사냥질이, 지금은 이런걸 안하고 골프라든지 크리켓라든지 학키라든지 하는 소위

요새의 스포츠라는거. 그때 스포츠가 이거니까. 처빙전렵(馳騁前獵), 전(前)자 쓰는거. 치빙전렵이라, 산으로 달리는거 그거 좋아서 하면 미치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면, 영인심발광(令人心發狂)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발광해 미치게 해. 난득지화(難得之貨)는, 금이니 은이니 다이아몬드, 보석, 진주, 그런거 난득지화, 얻기어려운 값진 물건. 영인행방(令人行妨)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가는데 길을 잘못들게 만들어. 나쁜 데로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소리고하니 한마디로 하면 사람은 감각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속에 무슨 정신생활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 감각이 없을 수는 없지. 살아가려면 그걸 알아야하지 않아요. 허지만 그걸로 잘못되니까 그렇게 아니고 속에 무슨 정신생활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

성인위복불위목(是以聖人爲腹不爲目)이라,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그러면 이 아래 내려가 설명을 보면 알아요.

배(腹)는 속에 있고, 눈(目)은 겉에 나와 있어. 제일 겉에. 제일 사람의 감각중에 아주 높은데 있어서 눈이 아주 중요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은 사람의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어두워서 못다니지." 그러고는 "육신의 눈도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얼마나 어두움이 더하겠냐?"

다른 동물도 다 눈만은, 본다고하는 거는 다른 오관(五官) 중에서도 본다는건 특별한, 오관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본다는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샤르댕의 "인간현상" 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면 씨(see), 영어로도 봤다는 말을 "I see" 안다는 말도 "I see" 안다는걸 눈으로 대표하리 만큼 "I see"그러리만큼 중요해. 그런데 이놈이 사람을 참 못쓰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않는다. 배는 속에 있고 눈은 겉에 있어. 배는 들어가리만치 들어간 다음에는 못들어가 안먹을래." 세상없는걸 취도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눈은 그만둘 줄을 몰라. 그저 하루종일 여기보고 여기보고 그래도 또 부족해서 또 뭣이 있나? 또 뭣이 있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에요. 그 아래 주(註)를 읽어가는데 제일 빨라요.

鳩摩羅什曰 不知卽色之空與聲相空與瞿盲何異
爲腹猶易良其背之意 不爲目猶陰符機在目之意
李約云目無厭聖人不爲 腹知足 聖人爲之
目視外 故云彼 腹實內 故云此

구마라십(鳩摩羅什), 옛날 인도에서 왔던 중이 있지요. 구마라십의 무슨 말인데, 어디 나왔는지 몰라. 불경보다가 해석하면서 한 말이지요. 구마라십이 왈부지즉색지공여성상공(不知卽色之空與聲相空)이면..... 반야심경(般若心經)읽어본 사람 있소? 반야심경 본사람 몇이나 돼? 하나도 없을까? 그건 얼마길지도 않은건데, 반야심경을 가서 찾아보세요. 거기서 나온걸로 하는데 공(空)과 색(色), 색은 이자 얘기대로 보이는 현상계야. 공(空)이라. 그러면 부정한데,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세계. 그 공인데, 그렇게 두고, 그걸 아는걸로 알고, 보통 누구든지 아는거니까, 공즉시색(空卽是色)이요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공과색이 따로 있는거 아니라 공이 곧 색, 절대계와 상대계가 따로 있는거 아니야.

상대(相對)가 곧 절대(絶對)요 절대(絶對)가 곧 상대라. 상대를 나타내지 않는 절대없고 절대 아닌 상대도 없고, 그래 지금 말로 하면 그 비슷한건데, 그러니까 공과 색을 갈라 얘기를 하면서도 공과 색이 전연 다른 물건이 아니라, 공(空)이 곧 색(色)이요. 색이 곧 공이라, 상대계가 곧 절대계. 상대를 통해서 절대를 보는거. 절대를 통해서 상대를 보게 돼. 즉색지공(卽色之空) 색(色)에 즉(卽)한 공(空)과 또 성(聲)소리에 상(相), 상은 모양. 그거 다 빈 것, 색을 통해 붙어있는 공이나 성이나 그 모양이 다 공(空)이야. 다 빈자리. 색에 있지만 그대로가 빈거다.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여농맹하이(與農盲何異)리요. 귀머리나 소경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리요. 보기는 봐도 못보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보기가 눈으로 봐서 저건 하늘이고 저건 땅이고 이거 사람이고 알지만.....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는데 그걸 못알아들으니깐 그건 무슨 소리 입니까? 그러고하니깐 그런 때는 대답 안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무식하게. 그걸 묻고 그러면 말해줘도 그걸 들을 자격이 없으니깐 그때는 욕밖에 얻어먹을게 없어요(웃음)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걸 보면 그사람 정도를 알잖아요. 그래도 그런다고해서 선생한테가서 "묻다가 또 망신만하면 어떡하지" 그럭하면 안돼. 망신할 각오를 하고라도..... 정말 내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도 없이 그저 뭘하나 물어볼까? 그래서 안되고.

서양사람들 가서 유명한 사람찾아가 면회하자고 그러면 첫마디가 "뭘 묻습니까?(Have you any question?)" 그럴 때 미리 생각이라도 해갔으면 모르지만, 갔을 때 "뭐 여기 학생이 몇 사람이 됩니까" 하면 그럼 벌써 저거는..... 갈 때는 저사람이 무슨 종교가라든가 과학자라든지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뭘 물을 건지 생각이 있어야하겠는데, 덮어놓고 "그 사람 한 번 만나볼까?" 그럼 뭘하는거야. 그러면 가야 망신만 하는건데, 그러니까 묻는거 어리석게 봐주세요.

여기 구마라십의 말이 왜 오색영인목맹(五色令人目盲) 오색이 도리어 소경을 만들고, 오음이 도리어 귀머거리를 만들고, 오미가 도리어 맛을 모르게 입을 찌그러지게 만들고 왜 이러냐? 그건 왜 그런고하니 나타나는 거라도 나타나지 않는 거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그게 봐야지.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풀잎새마다 하나님이 나타난거군. 부처님이로군, 그걸 거기서 본다 그말이야. 또 그런 사람에게는 돌인데 돌만 아니야. 거기서 영원을 보는거야. 그러질 못하는 사람은 보긴 봤지만 장님 아니냐, 서울 갔다와서 "서울가서 뭐 있습니까?" "아이 큰집 많더라" 한다든지 "뭔지 알 수 없는 물건이 참 많더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정도가 그밖에 못되니까 그런 사람은 눈이 있어도 먼 사람이야. 귀가 있어도 못들어.

농맹(農盲)과 다른 것이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오색이 도리어 사람을 눈이 어둡게 만드는 거고 오음이 도리어 그런다. 그 객관에 나쁜 성격이 있는건 아니야. 내가 모르고 보니까 모르고 아름다움이라는거가 이 자체 속에 여기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될 수록 꽃을 많이 사오면 아름다운줄 알지만, 꽃을 아무리 아무리 많이 사와도 미(美)를 감상할 힘이 없으면..... 돈많은 사람이 화분을 모처럼 갖다 줘어도 물도 안줘서 시들어 마르게만 해. 그게 무슨 그 사람이 꽃볼 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이제 눈멀었다, 귀먹었다, 맛모른다, 그렇게 말한거야.

그건 그렇고

성인은 위복불위목(爲腹不爲目)이라할 때 위복은 배를 위한다는 말은 유역간기배지의(猶易良其背之意)라. 유는 같다. 이것과 같다. 주역에 간기배(良其背)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거는 주역에 간괘(良卦)라고하는, 이담에 주역을 보시면 알지만 간괘라고 하는 괘가 나와있어. 간괘에 있는 말이 재미있어요. 간기배불획기신 행기정불견기인(良其背不獲其身 行其庭不見其人)이런걸 자주하면 그담엔 주역에 미쳐버린다고 그래. 그것도 미쳐선 걱정이요. 정말(웃음) 그러니까 참 어렵지. 이런걸 설명안해주고는 알 수가 없지요.

한문자가 얼마나 재미있나 보시오. 간(良)은 본래 눈목(目)이에요. 눈 목(目)아래에다'' 이력한거래. ''는 뭐냐 그러면 본래는 비길 비(比)자, 비길 비자는 뭐냐 그러면 나란히 섰다 그말이야. 눈(目)에다 ''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 눈을 뺀다고 하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려면 이 간(良)이라고 하는 자는 멎을 지(止)자로, 거기 멎는다는, 그래서 그거 재미있으니까 여기 붙은 글자로보면 눈이라고 할 때는 눈 안자가 '眼' 이렇게 됐지. 마음이 남을 원할할 때 한한다고 할 때 '恨' 이렇게 쓰지. 일이 어렵다고 할 때 '한' 이렇게. 요런게 이 간(良)자의 독특한 뜻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디 있는고하니 눈목(目) 아래다가 ''. 여기 눈을 뺀다는 데서 멎어라, 어렵다. 그런 따위 여러 가지가 나온거예요.

그 간(良)자를 설명하는데 간기배불획기신(良其背不獲其身)이라. 사람이 멎으면 그사람은 그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더 쉽게 말하면 원고하니 사람이 몸둥이 중에서 제일 제자리에 가만있는 게 뭐냐? 잔등이 제일 가만 있는 거. 눈도 이럴 수가 있고 귀도 이럴 수가 있지만 잔등은..... 잔등에 가 멎어.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있다 그런다면 사람이 그 사람이 있기는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라 그말이야.

행기정불견기인(行其庭不見其人) 그 사람이 있는 집에 뜰에 들어가서도 그사람을 못봐. 사람이란 어딜 나가 움직이고 이러는건데 집뜰에 거길 들어있어. 멎는다. 저 있을 자리에 턱 가 있으면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야. 봐도 보질 못하는, 그러니 주역이 많이 아니까 여기있는 이 위복불위목(爲腹不爲目)이라는게 무슨 소린고하니 사람의 몸 중에서 제일 가만있는거. 뭘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않는거, 눈은 그저 두리번두리번 여기저기 왔다갔다 그러는거지만 배는 주역에서 등(背)이라 했던 모양으로 이게 제일 속에 들어있어서 가만있는 것이고, 또 저 들어가리만치 들어간 다음에는 더먹겠다는 소리도 안하는거고 그저 만족할줄 알고 문제없는, 그런 의미로 여기 썼다고 한 거예요.

간기배지의(良其背之意)라. 주역에서 간기배라 할 때에 간기배불획기신행기정불견기인이라 했던 그런걸로 위복(爲腹) 이라는거 그렇게 사람의 내 생각이 배에 가 있어. 배가 뭐 밥먹을 생각만 한다는 말아니라, 안에 있어서 뭘 바깥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한없이 뭐했으면 뭐했으면 그러지도 않고 먹으리만큼 먹은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가만있는거. 눈은 보리만큼 봐어도 좀더보자. 귀도 조금 한마디만 더 들었으면, 더 만져봤으면, 다 그러는데 배만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도눈이라고 할 때에는 모든 기관을 다 표시하는거야. 보자, 먹자, 듣자, 그저 한없이 그러는,

그거 안한다. 위복불위목(爲腹不爲目)이라.

고거피취차(故去彼取此) 고로 바깥 것을 버리고 취차(取此)라, 이(此)는 가까운거니까 속에 있는 내배, 속은 지킨다. 사람이 제속에 마음의 주인이 있어야지. 그 주인을 내가 딱 붙잡고 마음이 깨있어야지. 소리만 들리면 귀있는 그쪽으로가고, 무슨 냄새가 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잡은걸 잃어버려. 나를 잃어버려. 그래 소경됐다, 귀먹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각만 아는 사람은 살았어도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말이야.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는 잃어버린 사람.

또 불위목(不爲目)은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거는 유음부기재목지의(猶陰符機在目之意)라. 내가 음부경을 못봐서 모르지만 기(機)하는거는 생명의 우주의 신비로운 무슨 활동이예요. 의미라고 해도 좋고 신비로운 작용.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기(機)가 눈에 있어. 기가 눈에 있으니까 이걸 안됐다. 잃어버린거야니. 기가 속에 있어야지 겉에 나와 있어야지고 되겠어요. 그건 음부경에 있는 말을 알아야 내가 거기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못봤으니까 모르나 뜻으로는 틀림없이 그럴꺼요.

이약운(李約云) 이약이라는 사람이 목무염(目無厭), 눈은 싫어할 줄을 몰라. 싫어함이 없어. 끝이 없어. 그저 봐도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성인불위(聖人不爲)라, 그러니까 성인은 그걸 안해. 감각대로 안한다, 그말이야. 눈만이 아니라, 감각중에 제일 가만 안있는게 눈이니까 그래서 심한거야. 또 복지족(腹知足)이라 배는 족한줄 알아. 먹은 리만큼 먹은 다음에는 "아이 난 싫어요" 먹을 생각안한다 그말이야. 성인위지(聖人爲之)라, 그러니까 성인이 한다. 목시외(目視外)요, 눈은 외계를 보는거야. 고운피(故云彼)라 고로 저거라 그랬고, 복실내(腹實內)라. 배는 안에 뭘 가득차게 하는거니까 고운차(故云此) 이것이라, 그래서 성인은 속살림을 하지 겉에 감각살림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 뜻이요.

윗 선은 물과 같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
居善地，心善淵，與善仁，言善信，政善治，事善能，動善時，
夫唯不爭，故無尤。

윗 선은 물 같도다.
물이 잘 모든 것에 좋게 하여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못사람의 싫어하는 데에 있으니
그러므로 도에 거의 하느니라.
있기는 잘 땅에 하고
마음은 잘 소(못)같이 하며
더불어 하기는 잘 착함으로 하고
말은 잘 미쁨으로 하며
나라 일은 잘 다스림으로 하고
일은 잘 거뜰히 하며
움직이기는 잘 때맞춤으로 하여

오직 다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선(善)이라 그러면 모든 덕목을 다 포함한 말이야요. 본래는 잘했다 못했다, 일이 잘됐다 못했다. 그런 때 쓰는 선이야요. 그런데 그 선(善)자는 우리 저번 다른 시간에도 했지만 양(羊)자, 요건 양(羊)인데 양은 본래 뿔이 있고 형용을 해서 그런 건데 양(兩) 옆에다가 말씀언(言)하고, 선(善) 옛날 본래 자는 이렇게 썼대요. 그게 착하다는, 잘한다는, 우리말로 착하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말인데, 그런거는 양이 본래 성질이 착한 거, 개인행동을 안해. 무리를 지어서 다녀. 그러면서도 약점이 어디 있는고 하니 길을 잘 잃어버린대. 단체행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떨어지면 그만 몰라.

그래 예수님도 길 잃어버린 양 같다, 그러는 거. 그래서 늘 목자가 앞서서 가면서 지도를 해요. 또 양치는 목자들도 양의 무리에는 염소를 같이 둔대요. 대개 염소는 길은 잘 안대요. 앞장을 서고 그러기 때문에 염소는 양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정반대로, 아주 꾀있고 아주 감쪽한 놈이야요. 그건 먹여본 사람은 알지만... 그래서 길잡이는 앞장을 염소를, 그래 산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 비슷하기는 한데, 산양을 우리는 염소라고 해요. 염은 수염 났다는 말이고 수염(鬚髯) 났다는 염(髯)자는 소인데, 소처럼 생긴 건데 수염난거라, 염소라. 우리나라에서 어째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염소를 산양이라 하는데, 양하고는 성질이 본래 달라요. 그러면서도 고놈은 아주 꾀가 있어.

양은 어디까지나 착해서, 그러니까 아마 본래 옛날에 가축을 여러 가지로 먹이를 주는데 그것은 또 이용도 많이 하지 않아요? 털도 쓰지, 실로 해서 쉼타 떠 입지, 가죽대로 쓰지, 고기 또 잘 먹지.

우리 선조도 옛날은 양 쳤는지 몰라.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목축은 그만둔 지가 오래지만, 예수님 나셨던 그런 지방에서는 양을 늑도록까지 많이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문자를 만들던 민족들도 처음에는 아마 양 많이 쳤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글자에 양(羊)자가 좋다고 하는데 좋은 데는, 착하다고 하는 데는 이결(吉) 썼던 건데, 그랬다가 후에 이게 약해져서 이결(善)로 착하다고 하는 게 표시되도록 됐고, 양이 크면 보기 좋다. 그래 미(美)라고 하는 걸로 표시했고, 또 의롭다 그럴 때도 의(義), 그것도 양(羊)에 나아(我)자, 내양은 내 것이지 그러니까 또 네 양은 네 것이지 네 것 내 것 구분해 그렇고 때문에 그런지 의롭다, 마땅히 제 것 제대로 찾는다 해서 의(義)라, 그다음에도 양(羊) 번에 쓴 글자가 많아요. 잘 한다고 하는, 착한 성격을 양이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내가 보지 못해서 몰라요. 내가 전해 들었는데,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목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또 차차 털도 있고 그러니까 양을 치기를 장려할라고 총독부시대에도 메리노를 수입을 해서 함경도 지방에다가 했던 일이 있어요.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의 말이라는데, 이제 하다가 못하게 되면 자연히 잡아먹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경험이 원고 하니 양은 참 못 잡을 것이더라고, 그런 말해요. 잡아도 소리로 안내도 그저 죽이는 대로, 노상 거짓말이 아닌 모양이야. 성경에도 있지만 "죽는 땅으로 가는 양이 아무 소리도 없이 끌려간다"고 하는 모양으로. 닭은 나도 잡아봤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마다 하면 꼼짝한 일이라도 제각기 제각기 하

면, 끔찍도 하지만 좋은 일도 될 수 있는데, 닭도 안 잡아보니까 모르는 점이 있을는지 몰라요. 잡고 싶어서 한건 아니지만 어찌어찌되니까 유선생님이 다 언제 잡으셨다고 그랬어.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지" 다 닭잡기 좋아 안하니까, 잡는다는거 좋은 일 아니지만, 또 그걸 잡아 보느라 좀 아는 것도 있지 않아요? 맹자 같은 사람도 다 젊잖은 사람이지만 군자는 뭘 공부한다는 사람은 푸주간에서는 멀리 산다, 푸주간이라는 데가 도살장이라 그말이야. 왜 그런고 하니 그 우는 소리를 듣고는 참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매매 우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 먹기 그만두는 일은 못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차마 그걸 보고까지는 못먹는다, 그래서 애들은 닭잡는 것도 안 뵈잖아요? 여자들은 옛날은 대개 아주 잘사는 사람이야 안 그랬겠지요. 중놈이나 중년이나 시켰겠지만, 평민인 다음에는 어머니들이 닭 잡아 봤을 꺼예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안보여 못써 못써! 저리가! 큰 짐승 잡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안하니까 도리어 어떻게 되나? 사람 죽이는 걸 예사처럼 하는데, 하여간 양이란 놈 착한 성격이야. 양은 순하든지 사람의 가장 순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에도 양으로 하게 됐나? 글자에까지 남게 됐나?

선(善)은 그렇게 된건데, 상선약수(上善若水)라, 참 착하게 하는, 썩 잘하는 착함은 물과 같다. 수선리만물이부쟁(水善利萬物而不爭)이라. 만물이 잘, 동물이고 식물이고 할 것 없이 물 아니고는 살 수 없잖아요. 생명하고 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야요. 그러니 이게 뭐냐? 옛날 사람이 우주의 맨처음에는 물이 먼저 있었을꺼다, 그런 말 당연한 말 이야요. 그런데 그 적에는 물리적으로 실험을 한게 아니고 순전히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탈레스가 맨처음에 "우주는 물로 났을 꺼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물리학 과학이 발달한 그걸로 봐도 물없이는 생명을, 우주선이 가는데도 수소가 있냐 없냐가 아주 기본적인 조건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어느 구석에 그런 것과는 천연 수소와는 관계 없이, 산소와는 관계 없이 되는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는 생명현상이라면 수소가 없이는 안된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물없이 산다는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사람은 노자가 쓸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이해해야 돼요. 노자의 이 비유만이 아니고 더 깊이 알 수가 있어. 상선이 약수라, 썩잘하는 것은 물과 같다. 같은 건 뭘로 증명하냐 하면 물의 천성을 가지고 말하는건데.

수선이만물이부쟁(水善利萬物而不爭)이라, 물이 잘 만물을 이롭게 해 모두동물 식물할 것없이 모든 물건을 살려 줘. 이롭게 해 좋게 해 좋게 해주는데, 그런데도 부쟁이라, 다투지 않는다는거. 물의 근본성격의 좋은 것은 부드러운 것, 연약한 것, 그저하면 하는 대로 해. 거스림이 없이 아주 약한 건데, 그런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

맹자의 유명한 논전이 그거야요. 사람이 성선(性善)이냐? 성악(性惡)이냐?

거기서 고자(告子)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사람의 성격은 빛과 같은고하니 "버들 같다". 버들회초리 같아서 그저 휘면 얼마든지 휘고 버들에도 "고리 버들"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 안 돋고 쪽쪽 이렇게 나가서 잘 꺾여지지도 않고 만만해서 그걸로 비유를 해요. 맹자가 논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담에 가 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사람의 인성이 이제 그 버드나무 같다고 한다든지 그것도 부족해서 물과 같아서 동편으로 물길을 이렇게 동그쳐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물길을 내면 서쪽으로 흐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옳다는건 밖의 조건에 있지. 본래 사람의 본성이 그런거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유하니까 거기 반박하는데 재미가 있는건 그래

물이 과연 그렇다는 건 옳은 말이다. 그러나 물이 동서의 구별은 없지만 물이 상하의 구별도 없단 말이나? 물은 어디까지든지 아래로 내려가지만 위로 올라가는 법 없지 않아? 그래서 사람의 착하다고 하는 것이 물의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 노자의 이거 모양으로 '처중인지소오라 못사람의 싫어하는 바, 그저 언제든지 내려서 내려서 보다 더 낮은 데가 있으면 좀 더 내리고 좀 더 내리고, 그 성격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쪽에서 사람이 본래 뭐 일정한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고 하니까 그래 성악(性惡)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모양으로 본래 처음부터 맹수같이 악독만 하다든지 그런 말은 아니예요. 이것은 규칙을 뭘 잘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세워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걸 해야 사람이 돼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주장을 하니까 성악이란 그런 말이 나왔는데, 맹자의 강조하는 거는 근본의 선한거 있지 않고는 어디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근본의 선한거 있다는 것이 뭔고 하니 마치 물이란 그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으로 근본성격이 그렇다, 그러고 해서 맹자가 인간의 이 역사 위에 있어서 성선설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서 꼭 자리가 잡히도록 한데는 그점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야요.



〈제4강〉

씨올의 자리에서 읽는 장자의 우언(寓言)

전호근

『장자』는 그저 단순히 시원한 문학만이 아니다. 피눈물이 결정된 저항의 문학이요, 삶의 부르짖음이다. …… 그렇게 볼 때 평화주의란 결코 평안에서 오는 한가한 말이 아니요, 뺨속에서 우러나오는 비폭력의 부르짖음을 알 수 있다.

—함석헌, 「노장을 말한다」, 『함석헌 저작집 24』(한길사, 2009)에서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보고 비폭력 사상으로 읽어 낸 건 탁월한 견해예요. 저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장자』를 저항의 문학으로 읽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장자』를 현실 도피의 텍스트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중국 학자들 중에서도 장자를 무기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보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아요. 아무 힘도 없고 실천도 못 하는 지식인이어서 역동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장자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낮잠이나 자겠다고 했는데, 낮잠 자는 게 어떻게 저항인가 싶겠지만 낮잠 안 자는 사람들이 살육과 만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낮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낮잠이나 자는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살았던 시대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한 일이 전쟁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남을 죽이고 실패하면 자기가 죽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무리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시대건 총칼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를 해치면 안 된다는 건 칸트식으로 말하면 정언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이 되지 않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도 총칼을 들지 않겠다고 하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읽는 성서, 『도덕경』, 『장자』, 『논어』 어디에도 전쟁을 정당화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도리어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성서), 전쟁은 불길한 일이다(『도덕경』), 멀리 있는 이가 복종하지 않으면 무력이 아닌 문덕을 베풀어야 한다(『논어』)고 했죠. 책대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읽은 대로 실천하려면 당장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워야 하고, 급기야 국가를 상대로 싸우다가 감옥에 가는 게 지금 현대 한국인의 삶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마치 특정 종교나 특정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함석헌 이후로 이 점에서는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함석헌은 동아시아 고전 중에서 『도덕경』, 『장자』뿐 아니라 『맹자』도 자주 인용했습니다. 특히 맹자가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라고 한 대목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不嗜殺人者能一之]”라고 한 말을 특별히 좋아했고, 모름지기 올바른 정치란 맹자의 말처럼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에 바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는 ‘혁명론’을 주장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맹자는 민의(民意)를 얻지 못하는 임금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함석헌 또한 5·16쿠데타를 비판하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민중만이 혁명할 수 있다. 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하여도 참이 아니다”라고 한 말 역시 맹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있다면, 어느 종교에도 공통된 것은 "내버린다"라는 것. 포기예요. 집을 내버린도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는 출가(出家)라는 것, 출가라는 건 집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렵잖아요. 다 훌륭한 명승(名僧)이 됐다고 하는 이들은 참 몰인정하리만큼 일단 출가를 한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도 싹 "몰라요!" 하고 면회 안한다는 거 아니요. 그런 결심이 아니고는 깨치고 들어가는 자리엘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요.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만 이상을 말하면 무소유(無所有). 소유를, 없다없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나라는 것까지. 장자가 말한 망아(忘我)지경. 앉아서 좌망아(座忘我). 앉은 채로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